
이슈 모니터링

이슈 모니터링: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중국 리오프닝과 공급망 리스크를 중심으로)¹⁾

요약

한국은행은 중국 리오프닝과 공급망 리스크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업체들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5월 11~31일 중 전국 34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 205개)를 실시하였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결과 업체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은 현재까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며, 하반기 이후부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사대상 업체의 56.3%는 수출이 중국의 봉쇄조치(22.3월)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하였거나 금년내 회복을, 31.0%는 내년 이후 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며, 12.7%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하였다. 산업별로는 이차전지, 조선, 자동차 및 부품, 철강은 대다수가 이미 수출이 회복되었으며, 향후 석유화학, 기계류, 휴대폰 및 부품, 디스플레이, 정보기기, 반도체 순으로 수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일부 업체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대다수 업체들이 중국 수출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우려하였다.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기기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원재료가격 상승을 우려하였으며, 업체의 76.0%는 중국 수출기업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기기, 철강, 휴대폰 및 부품, 조선은 중국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및 부품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확대,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반도체 등 IT업체는 글로벌 수요 약화, 미국·유럽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으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IT업종의 회복이 대체로 늦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봉쇄조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1)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2023년 5월 11~31일 중 지역경제보고서 모니터링 업체(전국 343개 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수출을 하지 않는 업체 등을 제외한 총 205개 제조업 수출업체가 응답하였다. 응답업체의 구성을 보면, 산업별(수출액 비중)로는 자동차 및 부품 27.5%, 반도체 22.8%, 정보기기 8.8%, 석유화학 18.3%, 철강 6.2%, 디스플레이 4.2%, 조선 3.2%, 기계류 1.6%, 이차전지 1.5%, 휴대폰 및 부품 0.8%, 기업규모별(수출기업수 비중)로는 대기업 23.7%, 중견기업 51.7%, 중소기업 15.6%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엄격한 표본추출에 따라 진행되는 통계조사와 달리 대상업체가 편중되어 있어 조사결과가 모집단(국내기업 전체 또는 각 업종)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리스크(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은 일부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의 21.6%가 2/4분기까지 다소 부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산업별로는 정보기기,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업체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업체들은 금년 하반기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3/4분기 이후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업체 비중은 41.4%에 달하였다. 특히 업체의 30.6%는 금년 중, 22.4%는 내년 중, 12.8%는 내후년부터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 철강, 반도체, 기계류, 정보기기 순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 대기업은 현지생산 확대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나, 중견 및 중소기업은 과반수 이상이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별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는 현지생산 확대를 통해 이미 대비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철강도 탄소 저감 기술 도입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기기, 반도체, 휴대폰 및 부품 등도 상당수의 업체가 향후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I.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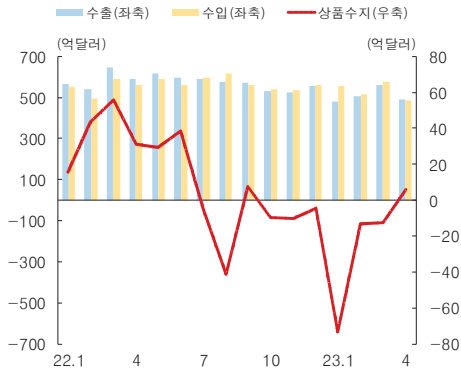
금년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²⁾하여 1~4월 중 상품수지는 92.7억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주로 대중 수출이 감소하였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부진은 주로 중국의 봉쇄조치³⁾에 따른 대중 수출 감소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 컸으나, 금년 1월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출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또한 향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국 343개 제조업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별·권역별로 ① 중국 리오프닝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② 공급망 리스크(미국 및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중국의 봉쇄조치 이후 총수출 감소 여부,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수출 동향 및 전망, 수출 회복 시점, 수출 관련 리스크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미국 및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수출 영향 및 영향 시점, 대응방안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2) 금년 1~4월 중 재화수출은 총 2,04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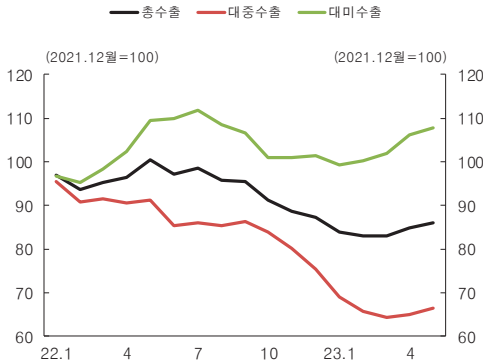
3) 중국은 2022년 3월경부터 코로나 봉쇄조치를 강화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는 방역정책을 전환하며 경제활동이 재개되었다.

그림 1. 상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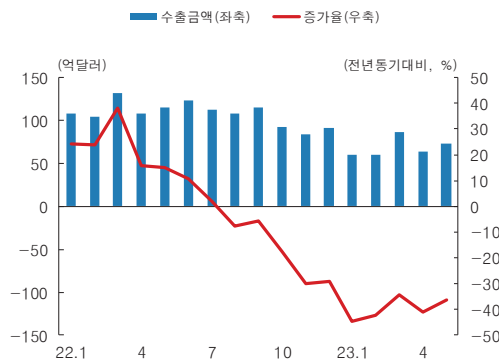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지역별 통관 수출¹⁾



주: 1) MA 3개월 기준
자료: 관세청

그림 3. 반도체 통관수출 및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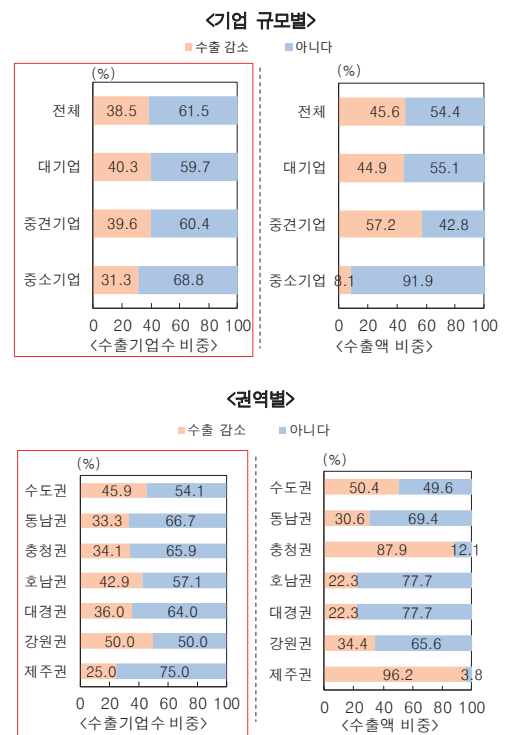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MPI 831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II. 중국 리오프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코로나 봉쇄 이후 수출 감소 여부

2022년 3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후 조사대상 업체의 38.5%(업체수 비중)가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감소 응답 기업수 비중은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권역별로는 강원권, 수도권,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동남권, 제주권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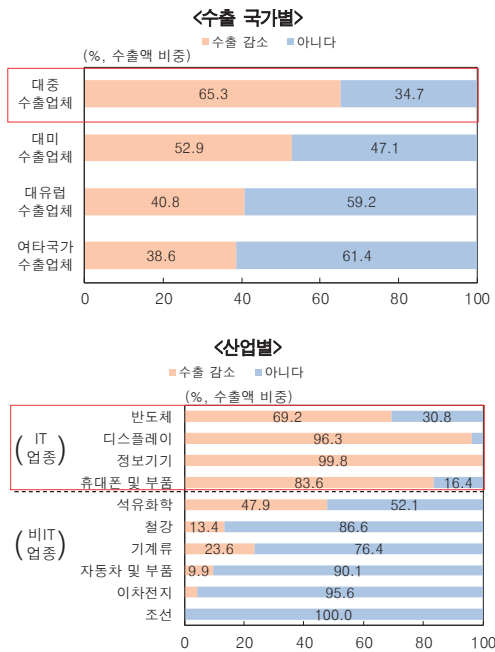
그림 4.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후 수출 감소 여부(1)



자료: 한국은행(설문조사 결과, 이하생략)

수출 대상 국가별로는 주로 대중 수출기업, 산업별로는 정보기기 등 IT기업의 수출 감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중 수출기업의 65.3%(수출금액 비중)가 코로나 봉쇄 이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여타 국가로 수출하는 업체의 응답 비중(42.4%)을 상회하였다. 산업별로는 정보기기(PC 등, 99.8%), 디스플레이(96.3%), 휴대폰 및 부품(83.6%), 반도체(69.2%) 등 IT업종이 비 IT업종보다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후 수출 감소 여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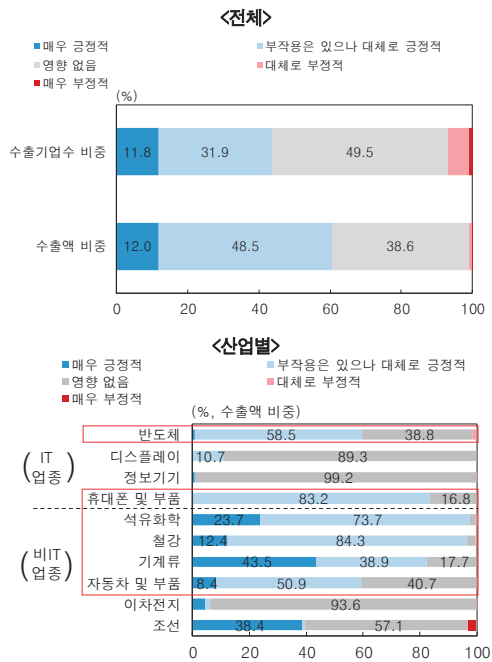


2. 중국의 리오프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 업체의 43.6%가 중국의 리오프닝은 수출에 '긍정적(매우 긍정적, 부작용은 있으나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산업별로는 석유화학, 철강, 휴대폰 및 부품, 기계류,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기기는 '영향없음'으로 응답한 업체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한편 조선 등의 일부 업체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는데⁴⁾ '원재료가격 상승'⁵⁾을 주된 이유로 선택하였다.

그림 6. 중국의 리오프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4) 조선업체의 3.0%(수출금액 비중)가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부 반도체(1.7%), 철강(0.5%), 이차전지(0.3%), 조선(0.3%), 석유화학(0.1%) 등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 중국의 리오프닝이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는 그 이유에 대해 '원재료가격 상승(35.3%)', '글로벌 수요 약화(24.3%)', '중국의 자국산 중간재소비재 자급률 상승(16.2%)',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8.8%)'의 순으로 1순위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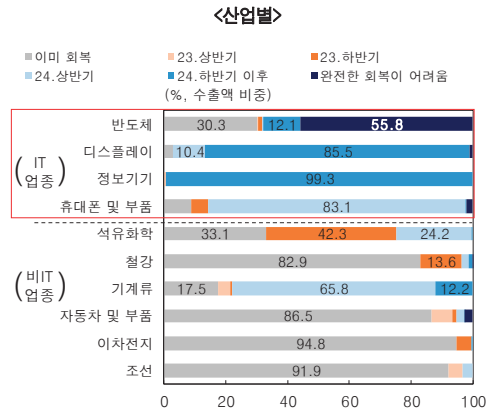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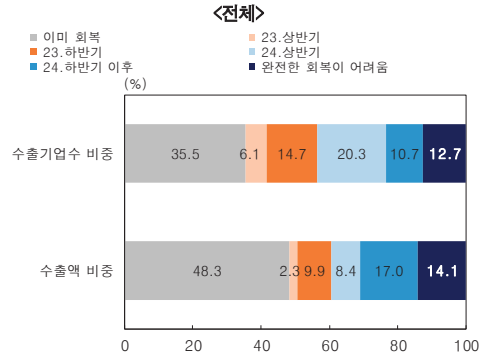
3. 수출의 중국 봉쇄조치(22.3월) 이전 수준 회복 예상 시점

조사대상 업체의 56.3%는 수출이 중국의 봉쇄조치(22.3월)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⁶⁾하였거나 금년내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내년 이후 회복 응답은 31.0%, 완전 회복이 어렵다는 응답도 12.7%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는 비IT업체들은 대다수가 회복시기를 '이미 회복~금년 중'으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예상하고 있는 반면 기계류 및 IT업체들은 회복시기를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조선, 자동차 및 부품, 철강은 80% 이상이 수출이 '이미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석유화학은 '금년 하반기 중' 수출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많았다. 기계류·휴대폰 및 부품은 대다수가 '내년 상반기 중' 수출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디스플레이 및 정보기기는 '내후년부터' 수출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반도체는 과반수 이상이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응답⁷⁾하였다.

그림 7. 수출의 중국 봉쇄조치(22.3월) 이전 수준 회복 예상 시점¹⁾



주: 1) 수출(해외매출 금액)이 중국 봉쇄조치(2022.3월)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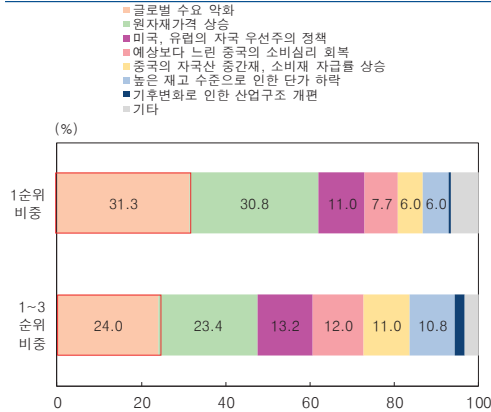
4. 향후 수출에서의 리스크 요인

향후 수출에서의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수요 악화'(31.3%), '원자재가격 상승'(30.8%), '미국 및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11.0%),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소비심리 회복'(7.7%) 등이 제시되었다.

6) 이미 수출이 회복된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리오프닝 이전인 2022년에 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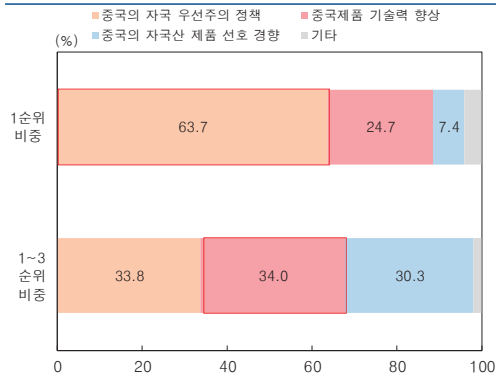
7) 반도체 업체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글로벌 수요 악화', '미국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높은 재고 수준으로 인한 단가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소비심리 회복', '중국의 자국산 중간재·소재 자급률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8. 수출 회복 과정에서의 어려움



중국의 자국산 중간재, 소비재 자급률 상승의 주된 요인(1순위)으로 업체들은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63.7%), ‘중국제품 기술력 향상’(24.7%), ‘중국의 자국산 제품 선호 경향’(7.4%) 등을 꼽았다. 특히 1~3순위 응답 전체로 보면 ‘중국제품 기술력 향상’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9. 중국의 자국산 중간재, 소비재 자급률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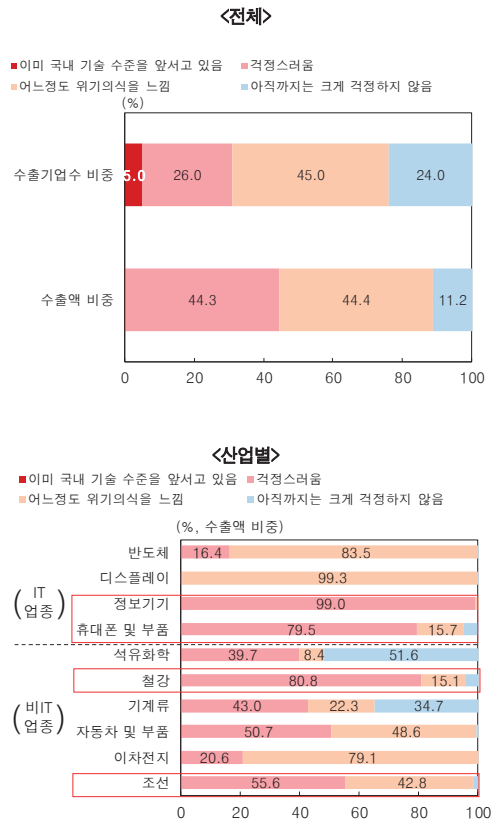


5.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수준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걱정스럽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76.0%)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는 석유화학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걱정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부 이차전지, 석유화학, 정보기기,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은 중국 수출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이미 국내 기술 수준을 앞서고 있다’고 응답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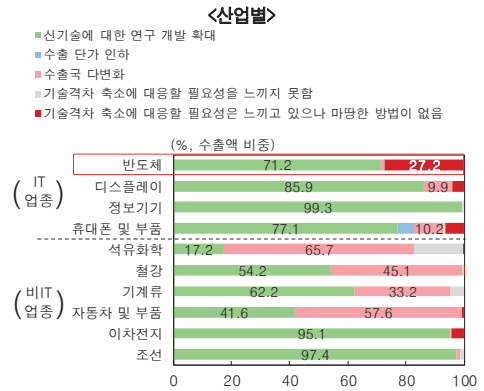
그림 10.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 수준



8) 일부 이차전지(0.3%), 석유화학(0.2%), 정보기기(0.1%), 자동차 및 부품(0.1%) 업체들은 ‘이미 국내 기술 수준을 앞서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확대'(47.4%), '수출국 다변화'(27.3%)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는 '기술격차 축소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10.5%) '마땅한 방법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10.5%)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는 정보기기, 이차전지, 조선, 디스플레이, 휴대폰 및 부품, 반도체, 기계류, 철강은 과반수 이상이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은 과반수 이상이 '수출국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부 반도체 기업(27.2%) 등은 '기술격차 축소에 대응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응답⁹⁾하였으며, 일부 석유화학 기업(16.8%) 등은 '기술격차 축소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¹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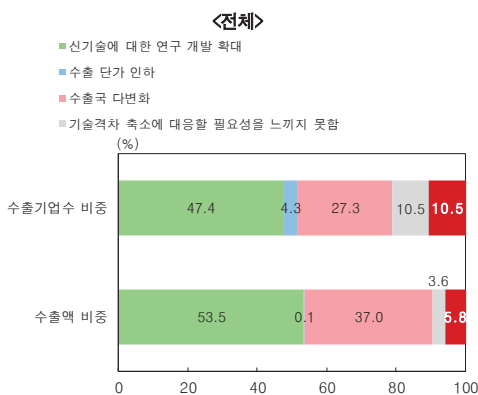
III. 공급망 리스크(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산업별 연관된 자국 우선주의 정책

조사대상 업체들은 주로 '미국·유럽의 반도체 지원법'(반도체, 정보기기 등),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철강 및 금속제품, 조선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차전지, 자동차 및 부품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미국·유럽의 반도체 지원법'은 주로 반도체 및 정보기기 업체와 일부 디스플레이, 기계류, 휴대폰 및 부품, 이차전지 등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주로 이차전지, 자동차 및 부품 업체와 일부 석유화학, 기계류, 휴대폰 및 부품, 디스플레이, 철강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주로 철강 및 조선 업체와 일부 기계류, 석유화학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1.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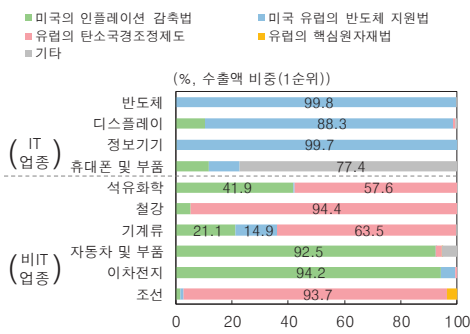


9) 일부 반도체(27.2%), 휴대폰 및 부품(6.5%), 이차전지(4.4%), 디스플레이(4.1%), 자동차 및 부품(0.6%), 석유화학(0.2%), 철강(0.1%) 업체들은 '기술격차 축소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10) 일부 석유화학(16.8%), 기계류(4.6%), 조선(1.5%), 정보기기(0.7%), 철강(0.6%), 휴대폰 및 부품(0.5%), 자동차 및 부품(0.3%) 업체들은 '기술격차 축소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22.8월 발효)	자동차
	반도체 지원법 (CHIPS and Science Act, 22.8월 발효)	반도체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23.4월 최종 승인)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
유럽	반도체 지원법 (European Chips Act, 23.4월 3자 합의)	반도체
	핵심원자재법 (CRMA, 23.3월 초안 발표)	원자재

그림 12. 산업별 연관된 자국 우선주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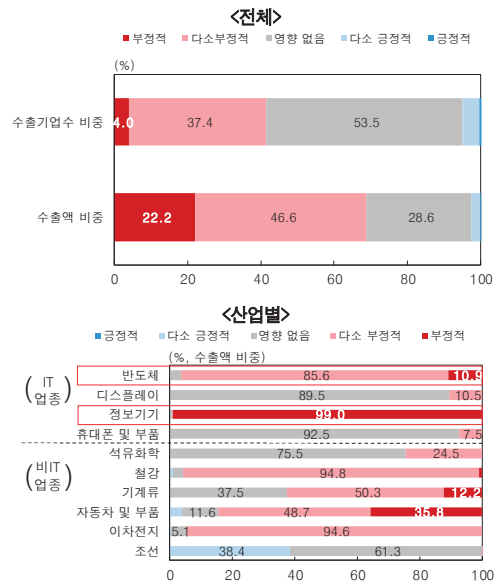
2.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영향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미 상당수 업체에 부정적(21.6%)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¹¹⁾, 업체의 41.4%가 향후 수출에 '다소 부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업별로는 정보기기(99.3%), 반도체(96.5%), 철강(95.8%), 이차전지(94.6%), 자동차 및 부품(84.4%), 기계류(62.5%), 석유화학(24.5%), 디스플레이

(10.5%), 휴대폰 및 부품(7.5%) 등의 순으로 향후 '다소 부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일부 조선업체(38.4%)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¹²⁾

그림 13. 미국·유럽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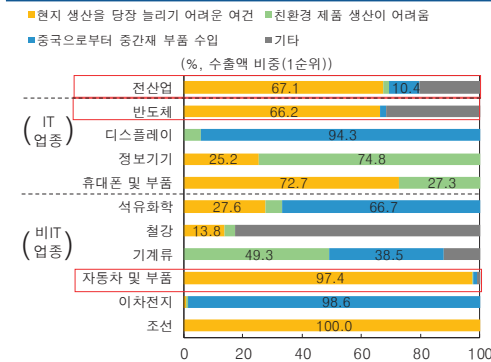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¹³⁾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업체(67.1%)가 '현지 생산을 당장 늘리기 어려운 여건'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휴대폰 및 부품 등의 과반수 이상이 '현지 생산을

11) 조사대상 업체의 21.6%는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미 2/4분기까지 수출에 '다소 부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산업별로는 정보기기(99.3%), 자동차 및 부품(82.0%), 이차전지(73.2%), 반도체(66.9%), 석유화학(24.5%), 기계류(20.4%), 철강(2.6%), 휴대폰 및 부품(2.0%), 디스플레이(0.6%)가 이미 '다소 부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조선업체들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이유에 대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를 1순위로 응답하였다.
 13) 수출기업수 비중으로 41.4%, 수출액 비중으로 68.8%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 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41.4%), 반도체(34.8%), 철강(10.7%), 석유화학(7.6%), 이차전지(2.5%), 기계류(1.8%), 디스플레이(0.8%), 휴대폰 및 부품(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당장 늘리기 어려운 여건'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 한편 석유화학,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수입'을, 정보기기, 기계류에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이 어려움'을 1순위로 선택한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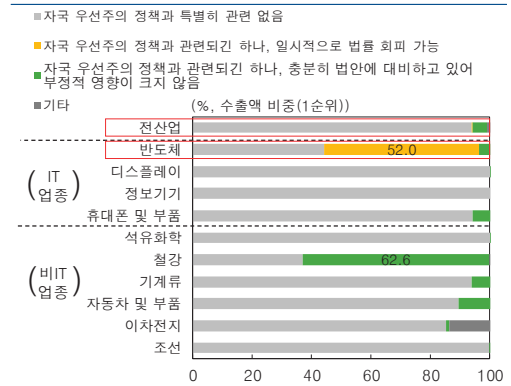
그림 14.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유(1순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¹⁴⁾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특별히 관련 없거나 일시적으로 법률 회피 가능, 충분히 법안에 대비'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산업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련되기는 하나, 일시적으로 법률 회피 가능'을 1순위로 선택한 업체가 과반수 이상이였으며, 철강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련되긴 하나, 충분히 법안에 대비하고 있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음'으로 응답한 업체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한편 휴대폰 및 부품을 포함한 여타 산업들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특별히 관련 없음'을 주로 1순위로 선택하였다.

그림 15.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영향없음'으로 응답한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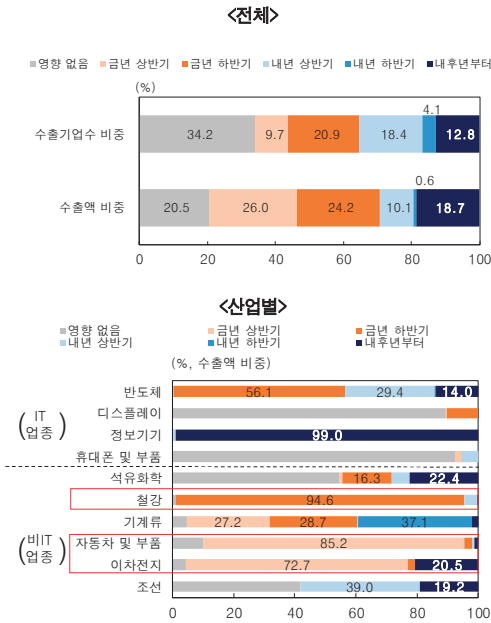
3.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 예상

조사대상 업체의 30.6%가 금년 중, 22.4%가 내년 중, 12.8%는 내후년부터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조사대상 업체의 34.2%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향후에도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9.7%는 '금년 상반기', 20.9%는 '금년 하반기', 18.4%는 '내년 상반기', 4.1%는 '내년 하반기', 12.8%는 '내후년부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는 주로 '금년 상반기', 철강은 '금년 하반기', 반도체는 '금년 하반기~내년 상반기', 기계류는 '금년 상반기~내년 하반기', 정보기기는 '내년 이후'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¹⁵⁾

14) 수출기업수 비중으로 53.5% 수출액 비중으로 28.6%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업별로는 석유화학(42.3%), 디스플레이(16.7%), 자동차 및 부품(11.0%), 조선(6.0%), 휴대폰 및 부품(3.2%), 기계류(2.3%), 철강반도체(0.8%), 이차전지·정보기기(0.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 예상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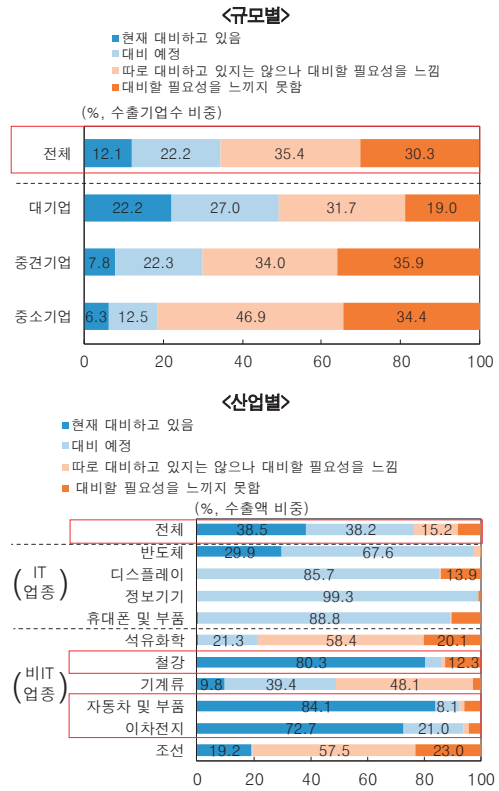
주: 1) '영향없음'으로 답변한 업체들 중 일부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당장 해당 업체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업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4. 자국 우선주의 정책 대응 방안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하고 있거나 대비 예정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은 34.3%로 나타났으며, 대비할 필요성이 없다는 업체 비중도 30.3%¹⁶⁾에 달하였다. 특히 주로 대기업 위주로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 중이거나 대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은 과반수 이상이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별도의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이차전지가 주로 '이미 대비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정보기기, 반도체, 휴대폰 및 부품, 디스플레이는 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7.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중인 응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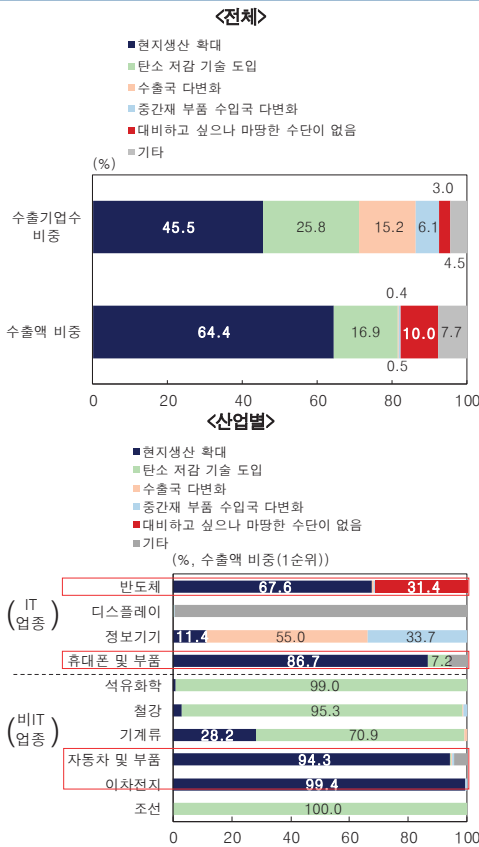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 업체¹⁷⁾들은 주로 '현지생산 확대'(45.5%), '탄소 저감 기술 도입'(25.8%), '수출국 다변화'(15.2%), '중간재 부품 수입국 다변화'(6.1%)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한편 휴대폰 및 부품, 디스플레이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16) 일부 조선(23.0%), 석유화학(20.1%), 디스플레이(13.9%), 철강(12.3%), 휴대폰 및 부품(10.2%), 자동차 및 부품(5.9%), 이차전지(4.3%), 기계류(2.7%), 정보기기(0.7%), 반도체(0.1%) 업체가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17)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하고 있거나 대비 예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들(34.3%)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산업별로는 이차전지, 자동차 및 부품, 휴대폰 및 부품, 반도체에서는 '현지생산 확대'를,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에서는 '탄소 저감 기술 도입'을 1순위로 선택한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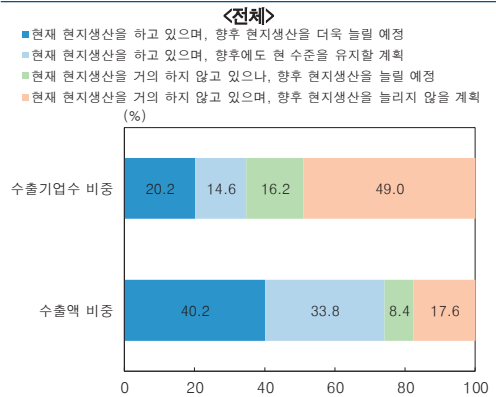
그림 18. 자국 우선주의 정책 대응방안(1순위)



향후 현지생산을 늘릴 예정', 14.6%는 '현재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응답업체의 49.0%는 '현재 현지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지생산을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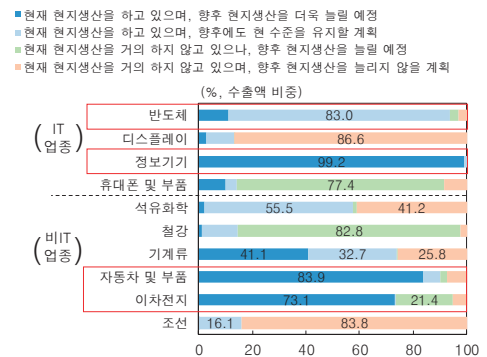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정보기기,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 기계류는 주로 '현재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생산을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반도체, 석유화학은 과반수 이상이 '현재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철강, 휴대폰 및 부품은 주로 '현재 현지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현지생산을 늘릴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9. 현지생산 현황



5. 현지생산 현황

현지생산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업체의 과반수 이상(51.0%)은 향후 '현지생산을 늘릴 예정'이거나 이미 현지생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업체의 20.2%는 '현재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며, 향후 현지생산을 더욱 늘릴 예정'으로 응답하였고, 16.2%는 '현재 현지생산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나,



IV.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리오프닝

업체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긍정적 영향이 상쇄되거나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석유화학, 철강, 휴대폰 및 부품, 기계류,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수출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조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기기는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국의 리오프닝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일부는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원재료 수급 차질로 기업의 생산계획이 축소될 수 있는 데다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 리오프닝이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많은 업종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금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반도체 등 IT업체는 수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차전지, 조선, 자동차 및 부품, 철강은 대부분 이미 수출이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석유화학, 기계류, 휴대폰 및 부품, 디스플레이, 정보기기, 반도체 순으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국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글로벌 수요 악화,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일부 업체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봉쇄조

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어렵다고 예상하였다.

대다수 업체들이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우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기, 철강, 휴대폰 및 부품, 조선은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및 부품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들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에 대해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확대,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공급망 리스크(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미국·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미 조사대상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의 41.4%가 3/4분기 이후 수출에 다소 부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도체, 정보기기 등은 주로 미국·유럽의 반도체 지원법, 철강, 조선 등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차전지, 자동차 및 부품 등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부터 이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거나 향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업체들은 당장 현지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일부는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부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친환경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의 30.6%는 금년 중, 22.4%는 내년 중, 12.8%는 내후년부터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

의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 철강, 반도체, 기계류, 정보기기 등의 순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업체들이 현지생산 등으로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대비 중·대비 예정인 반면, 상당수(30.3%)의 업체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주로 대기업 위주로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 중이거나 대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견 및 중소기업은 과반수 이상이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별도의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이차전지 등은 현지생산 확대를 통해, 철강 등도 탄소 저감 기술 도입을 통해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정보기기, 반도체, 휴대폰 및 부품 등도 상당수 업체가 향후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다.